

▶ **주생활****해외거주 교민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 문화의 고찰**

- 호주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

이 영 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주거전공 연구교수)

본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주생활에서 자(自)문화의 전통이 지속되는 부분과 타(他)문화와 접하여 조절과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타 문화에 동화된 부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것이 호주와 캐나다의 거주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는 2004년 7월19일-9월24일에 호주의 멜버른(Melbourne)과 2005년 12월30일-2006년 2월12일에 캐나다 동부의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에서 행하였다. 호주의 경우 52가정, 캐나다의 경우 32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였고 각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하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지는 주택의 LDK 유형과 만족정도, 각 실별 활동의 내용,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각 실별 바닥재 구성, 난방방식과 만족정도, 전통가구 및 전통용품의 보유 정도 등을 파악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주택의 LDK 연결유형은 호주의 경우 L+D·K(48.1%)형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의 경우 L·D·K(53.1%)형이 가장 많았다. 부엌의 위치는 두 지역 모두 주택의 뒤편을 선호하였으나 호주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이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선호(59.6%)한 반면 캐나다 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은 통합을 선호(70%)하는 차이를 보였다.
2. 두 지역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거실(가족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었다. 호주지역의 경우 거실과 부부침실에서 다림질을 행하고 있었고 캐나다 지역은 부부침실에서 다림질을 행하는 등 사적인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사작업을 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3. 두 지역 모두 대부분의 일상 활동은 입식으로 행하였는데 공통으로 좌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항목은 부엌바닥에서의 김치 버무리는 작업이었다. 또한 손님 접대시에는 두 지역 모두 공통으로 교жат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4. 주택의 바닥재는 침실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카펫인 경우가 많았고 거실은 두 지역 모두 카펫과 나무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두 지역 모두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었다.
5. 호주와 캐나다의 난방방식은 양쪽 모두 덥힌 공기를 덕트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호주의 경우 Ducted Heating, 캐나다는 Forced Air System으로 칭함)이었으며 호주지역은 3사례, 캐나다 지역은 1사례가 온돌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6. 두 지역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한국 요와 이불, 전통방석, 전통그림, 돛자리 등의 다양한 전통용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캐나다 교민의 21.9%가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7. 두 지역 모두 조사대상자들의 반 수 정도가 기존 전등의 조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백열구보다는 절전형 형광등을 선호하였다.
8. 주택 선택 시에 고려하는 항목으로서 호주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의 향위를 우선한 반면 캐나다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은 주변 환경과 주택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